

특 집

신자유주의 시대 젠더정의와 '유리천장 깨뜨리기': 변혁적 논의를 위한 비판 페미니즘의 제안*

이현재**

〈국문초록〉

이 논문은 유리천장 깨뜨리기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젠더정의가 추구해야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캐서린 로텐버그에 따르면 '일-가정 균형'과 '행복'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여성리더 담론은 젠더정의를 보장하기보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프레이저의 이론을 적용하자면 이러한 '신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젠더에 따른 노동 분업 및 여성 내 계급적 착취에 대한 변혁적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등장한 유리천장 깨뜨리기 담론은 어떠한가? 김진아의 저서에 나타난 야망 담론에서 신자유주의 주체는 신자유주의 원리를 과잉으로 따르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서거나 모순적 결과를 가져오는 등 기존의 틀을 변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주제어: 신자유주의, 젠더정의, 유리천장, 비판 페미니즘, 변혁적 개선책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7184)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feminphilo@hanmail.net)

© 2019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비판으로서의 페미니즘: 유리천장 깨뜨리기 담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페미니즘의 의제들이 붓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불법동영상 아웃, 성폭력 폭로전, 낙태죄 폐지, 4비 운동(비섹스·비연애·비혼·비출산), 탈코르셋에서 ‘경력단절’, ‘임금격차’, ‘유리천장 깨뜨리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의제들은 뜨겁게 토론되고 있다. 특히 ‘유리천장 깨뜨리기’는 최근 ‘정상’, ‘야망’과 ‘성공’ 담론을 동반하며 주요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국내에는 셰릴 샌드버그(Sheryl Sandberg)의 『린 인』(2013)에 이어 맥 마이어스 모건(Meg Myers Morgan)의 『여자에게는 야망이 필요하다』(2019)가 번역되었고 최근에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김진아는 『나는 내 파이를 구할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자기 몫을 되찾고 싶은 여성들을 위한 야망 에세이』(2019)를 출간하여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유리천장 깨뜨리기’, ‘정상’, ‘성공’, ‘야망보지 힘주기 프로젝트(야보힘)’¹⁾와 같은 의제를 바라보는 심경은 복잡하다. 젠더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도 고위직에 올라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나 다국적 가사노동자의 문제 등 여성 내의 계급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 내 계급의 문제를 도외시한다는 이유로 이 담론을 제기하는 페미니스트를 ‘이기적인

1) 야망보지 프로젝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론가마다 다른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다음의 글에 따르면 “‘비섹스/(이성애와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비연애/비출산/비혼/비소비/비뉘비(비혼은 돕는다 비혼을)’의 6가지 규칙으로 대표되는 야보힘 프로젝트는 우선 옷이나 화장품 등의 ‘코르셋’이나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비를 일체 중단하면서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를 요구한다.”(블로그 연희관 015B, 2019).

여성 집단'으로 내몰거나 신자유주의의 변종이라고 폄하하는 것도 성급하다고 본다. 여성들과의 연대를 중요시한다는 의지도 분명하게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고위직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면 유리천장 깨뜨리기는 모든 여성들을 위한 운동일 수 있는가? 유리천장 깨뜨리기는 사실상 특정 계급의 몇몇 여성들의 성공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유리천장 깨뜨리기는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위계적 젠더 이분법이나 노동 분업의 틀을 변혁하는 데까지 나아가는가?

이 논문은 이러한 물음을 제기하고 해명하는 과정이 바로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가 말한 '비판으로서의 페미니즘(feminism as a critique)'이라고 본다. '비판으로서의 페미니즘'은 우선 여성 억압과 해방을 둘러싼 시대의 투쟁과 바람을 제대로 해명하고자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비판으로서의 페미니즘'은 '비판의 비판'도 수행한다(Fraser, 1987: 31). 가령 프레이저는 당대의 페미니즘을 신사회운동으로 이론화하는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이 정작 페미니즘의 관점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 시대 유리천장 깨뜨리기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해명하고 나아가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작업까지 수행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좀 더 상술하자면 첫째 이 논문은 우선 캐서린 로텐버그(Catherine Rottenberg)와 함께 미국판 유리천장 깨뜨리기인 여성리더십 담론이 어떤 범주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이 논문은 프레이저의 변혁적 치유책의 관점을 도입하는 가운데 여성리더십 담론이 과잉 자체를 바꾸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최근의 한국판 유리천장 깨뜨리기인 '야망보지' 담론이 미국의 여성리더 담론과 어떤 지점에서 같고 또 다른지를 해명하는 가운데 이 담론이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변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삼차원적 젠더 부정의: 잘못된 분배, 무시, 대표 불능

비판적 담론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유리천장 깨뜨리기 담론이 젠더 정의(Gender Justice)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자. 이를 위해 2015년부터 본격화된 우리사회의 페미니즘은 어떤 이슈를 제기했는지부터 살펴보자.

가장 먼저 이슈로 떠오른 것은 성적 대상화였다. 불법동영상 아웃, 성폭력 폭로전, 4비 운동(비섹스, 비연애, 비결혼, 비출산), 탈코르셋 등의 이슈는 성차와 섹슈얼리티로 인한 폭력과 여성대상화를 내면화하는 일상의 문화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함께 임금격차의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었다. 2018년 여성가족부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 현황>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6.6%에 지나지 않는다(『오마이뉴스』, 2019.10.17).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보다 37.1%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일보』, 2019.9.26). 페미니스트들은 이 과정에서 공기업 및 금융기관 신입사원 채용에서 여성들이 배제되는 사건을 고발했으며 해고된 KTX여승무원의 복직투쟁,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투쟁을 지지하기도 했다. 경력단절 등으로 인한 승진에서의 불이익과 국회의원 등 고위직 공무원 여성비율 등 유리천장 담론도 등장하였다. 남녀동수제 등 열악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도 탐색했다. 이슈들을 놓고 볼 때 최근의 페미니스트들이 여성 대상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정치적 배제 또한 젠더 부정의(Injustice)의 주요한 심급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부정의의 차원이 있음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보여주는 것은 낸시 프레이저이다. 프레이저는 ‘여성’을 “2가적 집단

(bivalent collectivities)”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제적 분배와 연관되어 있는 계급이나 문화적 무시와 연관되어 있는 섹슈얼리티와 달리 여성이라는 젠더 집단의 부정의는 “사회의 정치-경제 구조와 문화 평가적 구조 양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프레이저, 2016: 41~2). 프레이저에 따르면 부정의의 이 두 가지 차원은 실체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며 “분석적”(31)으로만 구분된다. 노동이나 경제 제도에는 이미 여성의 노동을 평가 절하하는 문화적 가치가 스며들어 있으며, 여성을 멸시하는 문화적 의미체계는 여성에게 열악한 경제상황을 조성한다. 핑크노동은 여성의 노동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평가 절하되며, 여성이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여성성의 문화적 가치가 무시되기 때문이다. 여성이 당하는 문화적 무시(disrespect)나 잘못된 분배(maldistribution)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두 측면이다. ‘여성’과 같은 젠더 집단의 “실천에서 이 둘은 서로 얽혀”(32)있는 것이다.

논의를 확장시켜나가는 가운데 프레이저는 세 번째 부정의의 차원인 정치적 대표 불능(misrepresentation)을 추가한다. 가령 지구화로 인한 이주민이 급증하는 시대에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알릴 기회를 박탈당한다. 자신의 위치를 대표할 수 없는 여성의 목소리는 시민 공론장에서 배제되기 십상이다. 대표불능은 경제적 착취를 지속시키고 여성에 대한 조롱을 방치하게 만든다. 반대로 절대적 가난과 굶욕의 경험은 여성이 자신을 정치적 권리의 담지자로 이해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로써 프레이저에게 ‘여성’과 같은 집단은 3가지 부정의에 시달리는 집단이 된다. 여성은 그 집단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상징적으로 부당함을 겪으며, 정치적으로도 자신의 목소리를 대표(재현)할 수 없다. 따라서 젠더 정의는 여성이 이러한 서로 얽혀있는 세 가지 차원의 부정의를 극복하고 ‘참여 동등(participatory parity)’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삼차원의 젠더 정의를 체계적으로 고려하려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가 유리천장 깨뜨리기라고 생각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는 여직원 비율이 높은 조직조차도 간부급으로 가면 여성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4%(2016년), 여성국회위원의 비율은 17%(2019년 현재 51명)로 전 세계 평균 24%를 밑돌고 있다(『중앙일보』, 2019.3.7).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등장한 ‘성공’, ‘야망보지’, ‘유리천장 깨뜨리기’ 담론은 출산과 양육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문화가 여성을 비정규직 노동, 저임금의 핑크노동, 경력 단절에 내몰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을 정치적인 담론의 장에서 제외시키고 있음을 지적한다. 여성들은 문화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정치적 참여 동등의 지위에서 멀어지게 되며 결정권을 가진 고위직 인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조롱당한다. 여기서 유리천장 담론은 계급 착취, 문화적 상징, 정치적 배제가 없는 젠더 정의의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3. 미국의 여성리더 담론: ‘신자유주의 페미니즘’의 등장인가?

이렇듯 ‘유리천장 깨뜨리기’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여성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젠더 부정의를 지적하고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 비판으로서의 페미니즘은 다시 한 번 물음을 제기한다. 최근에 등장하는 ‘유리천장 깨뜨리기’ 담론은 젠더 정의에 이바지하는가? 이 담론은 모든 여성들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이에 대답하기 위해 이 논문은 먼저 로텐버그와 함께 미국에서 등장한

여성리더 담론이 어떤 핵심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로텐버그는 최근의 저서 *The Rise of Neoliberal Feminism*(2018)에서 미국 셀럽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페미니즘 선언이나 셰릴 샌드버그, 앤-마리 슬로터(Ane-Marie Slaughter)와 같은 성공한 중산층 여성 CEO 사이에서 확산되는 페미니즘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여성리더 담론은 “일-가족 균형”(Rottenberg, 2018: 55)과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핵심범주로 삼고 있는 신자유주의 페미니즘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의 여성리더 담론은 젠더 정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로텐버그는 미국의 여성리더 담론이 젠더 정의를 추구하는 듯하지만 알고 보면 기존의 젠더 이분법과 계급적 차이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유지시키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²⁾에 불과하다는 답을 내놓는다. 구조나 계급 자체의 변화가 불가능한 담론 안에서 젠더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로텐버그에 따르면 미국의 여성리더 담론은 무엇보다도 일과 가정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강조한다. 여성은 비용을 최대한 고려하는 가운데 양자 모두를 성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여성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관리해서 성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이 성공을 위해 가정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신자유주의 기업가적 주체상에 맞추어 여성성이 유연화될 필요가 있을 뿐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을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성 개인도 야망을 가져야 한다.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계발을 하는 여성은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메시지다.

2)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핵심은 모든 삶의 영역을 시장의 질서로 환원하고,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주체를 만들어 내는 데 있다.”(엄혜진, 2014: 8~9)

실제로 샌드버그는 자신의 저서 『린 인』에서 샐런 미어스(Sharon Meers)와 조애나 스트로버(Joanna Strober)의 『완전한 평등을 향하여 (Getting to 50/50)』을 인용하면서 정부와 사회과학 분야에서 실시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부부가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더라도 자녀 교육에서도 결혼 생활에서도 모두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책임과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부부가 분담할 경우 아내는 죄책감을 덜 수 있고 남편은 가정에 더욱 관심을 쏟으며, 아이들도 잘 성장한다”(샌드버그, 2013: 44).

그러나 로텐버그에 따르면 일-가족 균형의 이념은 결국 신자유주의의 통치술이다. 이 이념에 따라 자신의 욕구, 포부, 행동 등을 구성하는 여성은 모든 여성의 젠더 정의를 촉진시키기보다 개인 자기계발과 경쟁에 몰두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여성은 한편으로는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인적 자본’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난자 냉동 등의 재생산 기술 등을 통해 재생산을 미루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재생산을 하는 존재가 되며 이로써 생산-재생산의 세트에 구성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지속시키는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생산-재생산은 모두 자본과 기술을 통해 매개된다.

나아가 미국의 여성리더 담론은 페미니스트의 관점을 “정의에서 행복으로”(Rottenberg, 2018: 39) 옮겨 놓는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젠더 정의보다 개인의 행복이 더 큰 관심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담론의 주체는 젠더 부정의를 문제 삼고 도전한다. 하지만 그 도전의 방식은 완전히 개인화되어있다. 그들은 젠더 부정의를 치유하기 위해 경제, 사회, 문화 구조를 비판하기보다 개인적으로 경쟁을 뚫고 성공하여 행복하게 살 것을 추구한다. 여기서 젠더 부정의는 노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개인의 문제가 되고 따라서 성공한 경우 여성 개인은 그 성공을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인식한다. 성공의 결실도 자신의 웰빙을 위해 소비한다. 고생한 자신을 위해 소비

를 하면서 개인적인 행복을 느끼는 것은 성취감의 주요한 모멘트다.

그러나 로텐버그에 따르면 이러한 신자유주의 페미니즘이야말로 무언가가 진보적인 것을 하고 있다는 착각 하에 페미니즘의 정신을 사실상 퇴각시키는 포스트페미니즘의 흐름이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이념과 더불어 모든 공과 실의 책임은 개인에게 귀속되며 구조 변혁은 추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을 내재적으로든 그 다른 방식으로든 전혀 비판하지 않는다”(54-55). 평등, 해방, 사회적 정의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여성의 자기계발 그리고 이를 통한 신자유주의 체제의 지속만이 남게 된다.

로텐버그는 “균형”과 “행복”을 추구하는 페미니즘이 어떤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체제 유지에 기여하는지를 ‘신자유주의적 합리성’, ‘새로운 중간계급 여성세대’, ‘자기 책임’, ‘웰빙’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시 설명한다. 이 설명에 따르면 첫째로 이러한 페미니즘은 “신자유주의적 합리성(neoliberal rationality)”에 따르는 주체를 구성한다. 경제적 합리성은 모든 행위의 기반이 된다. 일-가족 균형도 비용을 계산하는 가운데 추구된다. 이 합리성에 따르는 여성은 기회, 자유로운 선택, 평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영향력, 혁신을 배가하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계발의 문제로 집중된다. 따라서 여기서 자기계발의 주체는 “자본을 강화하는 행위자(capital-enhancing agents)”(7)가 된다. 자기계발에 몰두하는 여성은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인적 자본이자 소비시장의 소비주체가 된다.

둘째로 이 담론을 이끄는 주인공은 “새로운 중간계급 여성세대”(63)다. 이 새로운 계급은 이미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제 능력에 상응하는 야망을 가지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계급은 따라서 젠더 간에 존재하는 “야망 격차”로 인한 고위직 불평등을 없애는 데 관심을 집중한다. 그러나 로텐버그에 따르면 여기서 주도권을 갖는 여성은 특정 계급에 한정된다. 샌드버그가 말하듯 “여성의 진정한 선

택은 가정에서 책임을 분담하는 배우자와 직장에서 여성을 지지해주는 고용주와 동료가 생길 때”(샌드버그, 2013: 241) 가능하며 이러한 환경을 가질 수 있는 여성들은 제한적이다. 이러한 환경을 가진 여성리더는 모든 여성들을 대변하거나 공감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이들은 결국 특정 계급에 속해 있다. 여기서 성공한 여성은 모든 여성과의 연대를 지향하지만 그 방식은 구조적인 변화가 아니라 개인적인 선의에 호소한다.

셋째로 이 담론에서 모든 것은 여성 개인의 “자기 책임(self-responsibility)”이다. 중간계급 여성 개인이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선택과 도전(lean in)하는 것이 중시되며 그러기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개별 여성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강조된다. 사회구조의 비판에는 초점이 모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계발과 자기변혁이다. 이런 맥락에서 로텐버그는 “린인의 초점은 사회 억압에 맞서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내적 장애물’을 없애는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Rottenberg, 2018: 63).

마지막으로 여성리더 담론은 여성 개인의 “웰빙”에 관심을 기울인다.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이러한 새로운 중간계급 여성세대는 더 이상 국가, 정부, 집단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들은 또한 공유재(common goods)와 같은 것에도 관심이 없다. 모든 것은 개인의 책임이므로 개별 여성은 전문가 사다리에 기어오르기 위해 분투한다. “여기서 변화는 내적, 고립적, 정동적 사안이 된다”(68). 따라서 개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계발한다. 이런 기업가적 주체는 자신의 커리어 번영, 특히 사업계에서의 커리어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도권을 갖도록 고무된다. 이 여성들의 궁극적인 정서는 이 체계 내에서의 행복이 된다. 도전에서 성공하여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긍정할 수 있게 되는 것, “지금 여기”에서 존재하며(being present) 웰빙하는 것이 궁극의 정서가 된다(105).

결국 로텐버그는 야망과 성공을 강조하는 미국의 여성리더론이 젠더 부

정의를 비판하는 외양을 가지지만, 사실상 여성들의 집단적 투쟁이나 구조적 변혁을 원치 않는 신자유주의적 담론임을 분명히 한다. 여기서 유리천장 깨뜨리기는 개인의 선택, 자유, 자기계발을 중심으로 추동되며 성공과 야망은 특정 계급의 여성이 도달할 수 있는 행복한 미래이다. 즉 지금 여기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웰빙하는 행복한 삶의 능력은 나와는 다른 여성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가운데 현재의 구조적 틀을 변혁시키려는 의지로 이어지지 않는다.

4. 변혁적 개선책: 왜 비판 페미니즘은 변혁적이어야 하는가?

결국 로텐버그가 미국의 여성리더십 및 성공담론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 담론이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변혁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여성이 아니라 이 체제에서 성공하여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여성 개인을 주인공으로 한다. 시장의 논리에 맞는 자이를 계발함으로써 개인적인 성공과 행복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는 다시 한 번 묻고자 한다. 왜 페미니즘은 신자유주의 비판적이어야 하는가? 왜 젠더 정의는 이 구조를 변혁하는 방향이어야 하는가?

이를 좀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다시 한 번 프레이저의 정의론을 소환해 보자. 프레이저는 부정의의 세 가지 측면 이외에도 부정의에 대한 두 가지 개선책을 언급한다. 하나는 근본적 집단 분화와 이를 유지시키는 틀에 손을 대지 않은 채 그 결과를 보정하는 긍정적 개선책(affirmative remedy)이고 다른 하나는 근본적인 집단분화의 틀 자체를 해체하는 변혁적 개선책(transformative remedy)이다.

부정의에 대한 긍정적 개선책이라는 말은 사회 질서의 불공정한 결과를 창출하는 근저의 틀거리는 손대지 않은 채 그 틀거리가 만들어 내는 결과를 교정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혁적 치유책이란 이와는 반대로 근저에서 이를 발생시키는 틀거리를 재구조화함으로써 불공정한 결과를 교정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프레이저, 2016: 49).

프레이저는 문화적으로는 변혁적 개선책을 사용하면서 경제적으로는 긍정적 개선책을 사용하는 경우, 반대로 문화적으로는 집단 분화를 긍정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집단 분화를 해체하는 개선책을 사용하는 경우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는 구조적 집단 분화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다른 하나는 분화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집단 분화와 관련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문화와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 개선책을 택하거나 변혁적 개선책을 택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프레이저는 긍정적 개선책으로 방향을 통일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층의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표면적 재할당만 문제로 삼기 때문이다. 게다가 분화된 집단 정체성을 전제로 적극적 조치를 실행하는 경우 해당 집단은 “특별대우나 과분한 부조의 수혜자”로 낙인찍힐 위험을 갖는다. 가령 젠더분화가 강조되는 정책은 “여성을 결합이 있고 만족을 모르는 존재로,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존재로 표시한다”(61). 이것은 정체성을 “물화(reification)”(프레이저, 2016a: 204) 시킬 뿐 아니라 편견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젠더 정의는 집단 분화를 그대로 둔 채 그 결과를 조정하기보다 집단 분화 자체를 해체하는 변혁적 개선책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유리천장과 같은 페미니즘의 이슈가 변혁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신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젠더 정의와 관련하여 비판되는가? 미국의 여성리더 담론을 이와 관련하여 재고해 보자. 물론 여성리더는

개인의 힘으로 고위직에 올라 젠더에 따른 노동 분화를 해체한다. 이런 점에서 여성리더 담론은 매우 변혁적인 개선책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고위직에 올라 노동 분화를 해체하는 것은 일부 여성들이다. 이들의 모습은 일부 여성의 경제적 상황과 여성성의 문화적 의미를 변화시키지만 지도자가 된 여성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젠더에 따른 노동 분화를 변혁하는 데 큰 관심이 없다. 이들은 제도보다 개인의 선택과 노력을 더욱 강조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는 여성들은 여전히 계급적, 젠더적 노동 분화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다.³⁾ 중간 또는 하층 계급의 여성들은 기껏해야 고위직에 올라간 여성들의 선의나 연대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여성 내의 계급 분화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밖에도 여성리더 담론은 고위직에 올라갈 사람의 수나 그 직업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고위직의 총량과 속성을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유리천장 깨뜨리기 담론에서 여성은 기존의 남성 노동자상을 표준으로 삼으며, 따라서 독립적이고 능력있는 주체로서의 여성은 남성의 자리를 빼앗는 경쟁자이자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낙인찍힐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사회 변혁으로 나아가는 유리천장 깨뜨리기 담론은 가능한가? 어떻게 유리천장 깨뜨리기는 삼차원적 젠더 정의를 위한 변혁적 개선책이 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개인의 역량으로 환원시키기보다 유리천장 깨뜨리기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정책은 어떤 것인가? 『전진

3) 신경아는 박소진을 참고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아실현을 '가족경영'의 임무를 통해 수행함으로써 성별 역할 분리가 지속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경쟁과 효율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장 중심 사회에서 개인들은 사회적 안전망 없이 '자기계발'이나 '자기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여성은 어머니로서 자녀의 '매니저 엄마' 역할을 통해 '가족경영'의 임무를 수행한다"(신경아, 2013: 219). 이러한 맥락에서 임옥희 역시 가족주의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자식의 '매니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어머니를 모성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는 사례로 설명한다(임옥희, 2010; 신경아, 2013: 219에서 재인용).

하는 페미니즘』에서 프레이저는 가족임금 이후의 ‘정의로운’ 사회복지의 비전을 탐색하는데 이는 어떤 복지정책의 모델이 유리천장 깨뜨리기를 변혁의 방향으로 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단초를 보여준다.

프레이저에 따르면 남편이 생계부양자가 되고 부인이 가사노동자가 되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은 더 이상 오늘날 유효하지 않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가족임금까지 보장된 월급을 가져오는 남성은 매우 제한적이며 여성들도 비록 안 좋은 조건이지만 공적 시장으로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복지모델을 추구해야 하는가? 어떤 모델이 젠더 정의를 증진시키는가?

프레이저가 먼저 살펴보는 것은 “보편적 생계부양자(universal breadwinner) 모델”(프레이저, 2017: 161)이다. 이는 여성을 남성과 동일한 생계부양자로 만들어 젠더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언뜻 집단적 분화를 넘어서는 변혁적 개선책으로 보인다. 여기서 아이를 주로 돌보는 것은 남편도 부인도 아닌 공적인 탁아서비스다. 그러나 이쉽게도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 모델은 부분적으로만 실현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경제체제 안에서 여성에게 남성 생계부양자만큼의 고임금 정규직을 보장해 주는 일자리는 충분히 제공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모델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전문 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제한된다. 앞서 로텐버그의 지적대로 이들을 위해 저임금의 돌봄 노동을 제공하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임금에 여성화되고 주로 인종화된 이민자들”(176)이다. 제한된 일자리를 두고 벌이는 경쟁에서 밀려난 여성들은 여전히 저평가된 임금의 돌봄 노동을 하게 되며 이런 점에서 사회 전반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화 및 여성 내의 계급 분화는 지속된다(181).

그렇다면 “동등한 돌봄 제공자(caregiver parity) 모델”(161)은 어떠한가? 이 모델은 국가가 여성의 비공식 돌봄노동을 지원함으로써 젠더정의를 증진시킨다. 여기서 여성은 돌봄에 전념하거나 유연근무·임시직에 종

사하면서 돌봄을 병행하게 되는데 국가는 이에 대해 상근직과 같은 비율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어느 정도 경제 불평등을 회복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일이 되기 쉽다. 그리고 유연노동을 하는 여성들은 풀타임으로 일하는 남성에 비해 승진이나 승급의 기회를 제한당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모델은 여성에게 기존의 노동 분업, 기존의 젠더 분업을 지속시키고 여성들이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모델은 충분히 변혁적이지 않은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프레이저는 제 3의 대안으로 “보편적 돌봄 제공자(universal caregiver) 모델”(188)을 제시한다. 이는 여성이 남성의 생계부양자 생활패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의 돌봄 제공자 생활패턴을 따라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필자는 이 모델이 기존의 젠더 구분뿐 아니라 생계부양과 돌봄 노동 사이의 분화를 해체하는 변혁적 치유책이라고 본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젠더 역할 구분만이 아니라 여성 내부의 역할 분화와 계급적 분화를 해체한다. 필자는 이러한 변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안 윌리엄스가 말한 노동시간의 단축, 남성의 의무적 육아휴직 같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Williams, 2019)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앞서 로텐버그와 함께 살펴보았던 미국의 여성리더 담론은 어떤 모델을 전제로 하는 것인가? 샌드버그는 여성은 슈퍼우먼이 아니며 남편은 양육을 돕는 자가 아니라 양육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기업의 차원에서 여성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 때 샌드버그 식의 페미니즘은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에 공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샌드버그가 제시하는 여성리더십 담론은 젠더 이분법과 계급적 분화의 근저에는 손을 대지 않은 채 그 결과를 일부 교정하는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남성도 의무적으로 양육휴가를 가져야한다거나

돌봄을 위해서는 과감한 근무시간 단축이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샌드버그는 자신의 동료이자 야후 CEO인 마리아 메이어가 임신 말기까지 일했던 것을 페미니스트들이 비판하자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할 것을 강조한다(샌드버그, 2013: 242). 샌드버그는 사회 전체의 구조를 바꿀 정책에 관심을 갖기보다 개인의 선택과 역량을 강조한다. 또 다른 사례로 샌드버그는 윌리엄스를 인용하면서(Williams, 2012.8.22) 여성이 여성을 적대시하는 현상을 비판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구조 변화에서 찾기보다 고위직에 올라간 여성의 선의나 질투하지 않는 인품의 회복에서 찾는다. 이로써 고위직에 오르지 못한 여성들은 고위직에 올라가 힘을 키운 여성의 개인적이고 선택적인 도움을 받는 집단이 된다.

결국 여성리더 담론은 사회전반에 놓인 젠더에 따른 노동 분업구조와 여성 내부의 계급적 분화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일에는 손을 대지 않으며 그런 점에서 여성들을 여전히 문화·상징적으로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넘어서지 못한다. 젠더 정의는 따라서 자기계발의 여성주체가 노력과 선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성취해야하는 문제가 된다.

5. 한국형 유리천장 깨뜨리기 담론: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신자유주의 주체

그렇다면 최근 한국사회에서 등장한 유리천장 깨뜨리기나 래디컬 페미니스트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야망보지 힘주기 프로젝트는 어떠한가? 이 담론 역시 미국의 여성리더 담론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페미니즘인가? ‘야망보지’를 언급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노동 및 계급 분화 자체를 해체하는 변혁적 관심을 갖는가? 아니면 근저의 틀거리를 손대지 않은 채 부분적

인 재할당만을 시도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하나의 통일된 답을 제시하기는 힘들다. 최근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페미니즘의 입장을 개진하기 때문이다.⁴⁾ 이에 이 논문은 최근 출판된 김진아의 『나는 내 파이를 구할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2019)⁵⁾에 나타난 야망 담론을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이 저서에서 김진아는 모든 소수자나 약자가 아니라 여성을 우선 챙기는 페미니즘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저자는 래디컬 페미니즘과 기본 입장을 함께 하는 것이다.⁶⁾ 저자는 전 인류를 생각하는 도덕적 관점을 과감히 버리고 여성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저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적어도 여성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한국형 래디컬 페미니즘이 유리천장 깨뜨리기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작업은 한국형 래디컬 페미니즘의 '야망보지' 담론이 미국의 여성리더 담론과 마찬가지로

-
- 4) 최근의 한 기사에 따르면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여기는 전국의 20대 여성 1169명에게 '현존하는 인물 중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여성 인물은 누구인가?'를 물었을 때 그 대답은 매우 다양했다. 1위는 '없다'(33.27%)였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위(18.64%),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위(8.98%),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4.70%)이 4위 등으로 나타났다(『여성신문』, 2019.10.17). 롤 모델이 없다는 대답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것도 생각해봐야할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에서 진보까지 매우 다양하다는 점도 특이하다. 이는 신자유주의 비판이나 변혁적 관점에 대해 다양한 페미니스트들이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하는 부분이다. 과거에 페미니즘은 진보 혹은 좌파라는 등식이 성립했다면 이제 더 이상 그 등식은 기계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 5) 물론 이 책이 한국사회의 래디컬 페미니즘의 '야망보지' 담론을 대변한다고 보긴 어렵다. 야망 담론은 주로 2030을 중심으로 확산되지만 이 책의 저자는 40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나타나는 어조가 많은 청년 페미니스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상 최근의 흐름을 진단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본다.
 - 6) 물론 한국형 래디컬 페미니즘의 스펙트럼 역시 위ward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래디컬 페미니스트, 트랜스젠더 배제적 입장을 견지하는 래디컬 페미니스트, 정치적 레즈비언리즘을 강조하는 래디컬 페미니스트 등 다양하다. 이 논문은 '생물학적 여성'의 경험을 강력한 동일성의 토대로 강조하는 가운데 여성을 최우선으로 먼저 챙기는 입장을 한국형 래디컬 페미니즘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가지로 신자유주의 체제를 공고하게 만드는 페미니즘인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될 것이다.

선택해서 말하자면 한국형 래디컬 페미니즘이 제안하는 야망 담론에서 여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정상'과 '성공'을 욕망한다. 미국의 여성리더 담론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좋은 일자리를 가져야 하며 고위직에 올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형 래디컬 페미니스트의 야망보지 프로젝트는 신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는 의심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한국형 담론은 성공만큼이나 '생존'을 강조한다. 생존을 강조하는 한국형 야망 담론은 결정적으로 '일-가정 균형' 대신 '출산불매', '결혼불매'를 선택한다는 것이다(김진아, 2019: 55). 개인의 '행복'이나 '웰빙'보다 여성 '연대'와 정치적 소비를 더 궁극적인 과제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담론은 기존의 젠더에 따른 노동 분화와 계급분화를 해체하는 변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보편적 돌봄 노동자 모델처럼 다른 여성들을 착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젠더 이분법의 구조를 해체시키고 있는가?

다음에서 필자는 앞서 로텐버그가 미국 여성리더 담론의 키워드로 제시했던 신자유주의적 합리성(합리화), 새로운 중간계급 여성세대(계급화), 자기 책임(개인화), 웰빙(정서화) 등의 키워드가 김진아 식의 야망 담론에서 어떻게 변주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물음에 답해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형 래디컬 페미니즘의 유리천장 깨뜨리기가 미국의 신자유주의 페미니즘과 어떻게 같고 또 다른지를 밝혀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먼저 한국형 야망담론이 '신자유주의적 합리성'과 어떤 연관을 갖는지부터 살펴보자. 김진아는 살아남기 위해 여성들이 '전문성'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자기계발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것은 체제 내에서 자신의 가치를 최대화하려는 계산적 합리성이다. 살기 위해 스스로 신자유주의에 적합한 인적 자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형 페미니스트 주체는 일-가정 양립을 선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계산적 합리성은 가정 대신

'비섹스', '비연애', '비혼'을 그 답으로 내 놓는다. 이는 신자유주의 시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자녀의 교육과 경쟁에 몰입하는 방식으로 자아를 실현하곤 했던 경향과도 확연히 다르다. 출산과 양육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평등하게 수행될 수 없는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위기감을 느끼는 여성은 남성과의 사랑, 연애, 가정을 부정함으로써 계산을 최대화한다. 이는 김진아가 자신이 한 때 롤모델로 삼았던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 주인공들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사실 〈섹스 앤 더 시티〉의 더 큰 해악은 '꾸밈 중독'보다 '남자 중독'의 패션화다. '나는 나를 더 사랑해'라고 외치지만 그들의 삶은 남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전한다. 어딜 가든 무얼 하든 친구들과의 대화 소재도 늘 남자다. (...) 야망과 재능이 무엇이건 간에 연애와 결혼이 여자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선동하는 프로파간다(김진아, 2019: 80).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저자는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에 따른 자기계발을 최대화하는 가운데 탈코르셋과 비혼을 선택하고(블로그 연회관 015B, 2019)⁷⁾ 이로써 가부장적 젠더 이분법뿐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과 재생산-비록 지연되지만 궁극에는 이루어지는-세트로 유지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넘어선다.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을 매우 충실하게 실천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를 떠받치고 있던 젠더 이분법에 저항하고 최첨단 생식 기술 및 자본을 통해 유지되는 재생산 과정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페미니스트는 본의 아니게 신자본주의적 틀을 교란하게 된다. 이것은 의식적인 저항은 아니지만 여성의 발목을 잡았던 재생산의 문제를 무화시킨다. 여기서 페미니스트는 플레이어가 말하는 보편적 돌봄 노동자 모델과 같은 것을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는다. 비섹스, 비연애,

7) 이 글에 따르면 야망보지 힘주기 프로젝트는 연애와 화장을 할 시간에 자기계발을 해서 성공할 것을 추구한다.

비혼 등과 연결되는 야망담론은 처음부터 타인에 대한 돌봄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쉽지만 모든 사람들이 돌봄 노동자가 되는 모델은 여기서 추진되지 않는다.

둘째로 그렇다면 한국형 야망담론은 '새로운 중간계급 여성세대'의 담론인가? 필자는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 성공과 야망담론 역시 평등하게 교육받은 새로운 여성세대의 등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통계청의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이미 2005년부터 여성의 대학진학율은 남성을 앞질렀고 2017년에는 72.7%로 남성보다 7.4% 포인트 높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18: 35). 2000년대 초반부터 '알과걸'은 여러 방면에서 남성을 능가하는 높은 성취욕을 갖는 여성을 의미한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교육받으며 자기계발에 주력한다.⁸⁾ 전문직을 향한 열망도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행정고시 합격자는 여성 141명, 남성 207명, 사법고시 합격자는 여성 40명, 남성 69명으로 점차 그 간극을 좁혀가고 있으며 외교관 후보자 합격자는 여성 22명, 남성 21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명 더 많았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2018). 이런 분위기에서 좋은 인적자본을 축적하게 된 여성들은 좋은 직장 및 고위직에 대한 야망을 갖게 된다. 김진아가 말하듯 “유난히 야망이 컸던 나는 누군가의 여자보다 누군가가”(김진아, 2019: 26) 되고 싶었다. 중간계급으로 부상한 여성들은 행복한 주부보다 자기를 실현한 고위직 리더를 꿈꾸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능력을 갖춘 여성은 부당한 문화적 경제적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적다. 오히려 이들에게 익숙한 것은 현 체제 내의 경쟁에서 이겨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다. 특히 IMF 이후의 한국사회는 배가된 신자유주의적 경쟁으로 인한 불안이 지배하고 있다. 이 경쟁에서 지면 도태할

8) 김진아 역시 자신이 부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강남의 아이들을 동경하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자기계발에 몰두했다고 고백한다.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여성들에게 파이의 수와 크기를 변혁하는 일, 틀거리를 바꾸는 일은 사치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중간계급 여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틀 안에서 열심히 자기계발을 해서 '생존'하는 것이다. 이런 여성들에게 모든 인류를 구하기 위해 틀거리를 바꾸어야 한다는 규범은 판타지일 뿐이다.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모든 소수자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며 남녀를 떠나 공정한 판단을 하는 '멋진 나'에 취했던 때가 있다. MTV, 온스타일, 넷플릭스로 이어지는 미국 팝컬처를 먹고 자란 사람이라면 빠지기 쉬운 백인 중산층 리버럴 판타지다(김진아, 2019: 7).

여자도 얼마든지 부도덕해질 수 있다. 남자만큼 혹은 남자보다 잔인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페미니즘은 평화주의가 아니며 도덕성 투쟁이 아니다. 남자들에게 빼앗긴 여자 몫의 파이를 되찾는 투쟁이다(김진아, 2019).

여기서 한국형 야망담론은 샌드버그가 분석한 미국의 여성리더 담론 이상으로 중간계급 여성의 이익과 생존에 충실하다. 이들은 살기위해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도덕을 벗어던진다. 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은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제3세계 여성이나 비정규직 여성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야망담론은 젠더 정의의 중요한 여성 내부의 계급적 분화의 문제를 중심에 놓지 않는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야망담론에는 반전이 존재한다. 도덕성을 거부하고 꼭대기에 올라간 여성 CEO는 완벽한 개체가 아니다. 이들은 '여성'이라는 이름하에 다른 여성의 경험에 공감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등장한다.

남자가 최종 결정권자였다면 가능했을까? 아무리 나의 커피가 좋아

도, 아무리 D기획사에서 시안을 잘 만들고 PT를 잘해도, 오랜 클라이언트 경험으로 비취봤을 때 남자 대표였다면 선뜻 이 광고안을 고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 기적에서 신의 한 수는 최종 결정권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강남역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가시화된 여성혐오, 여성의 실질적 안전과 생존이 위협받는 현실 인식과 공감은 여성 대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김진아, 2019: 123).

흥미롭게도 여기서 중간계급 여성의 야망 담론은 취소했던 윤리를 다시금 불러온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성에 대한 공감과 배려이다. 여기서 여성 CEO는 여성 보편의 경험에 공감하는 능력이 있으며 적어도 여성에 한에서만은 계급적 분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 성공한 여성은 다른 여성들에게 손을 내민다. 물론 이러한 배려는 숭고한 이념이나 가치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다. 여성 일반이 살아야 여성 개인이 생존할 수 있다는 합리적 사고 속에서 도덕을 거부했던 여성은 아이러니하게도 여성 일반에 대한 공감의 윤리를 소환한다.

셋째로 “자기 책임”의 문제를 살펴보자. 한국의 야망 담론은 물론 신자유주의에 공명하면서 개인의 노력과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맥락에서 조직 내에서 열심히 일했으나 실패했던 경험은 한 때 “내가 부족해서 실패했다는 자책감,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력감”(17)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강남역 사건 이후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한 이 중간계급은 자신의 실패를 여성혐오라는 구조와 연결시켜 인식하게 된다. 40세만 되어도 여성이 직장에서 천대받는 이유는 자신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남성중심적으로 편재된 구조 때문이라는 자각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2의 물결에서 개인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던 여성들의 각성과도 유사하다. 김진아 역시 자신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37). 물론 2030은 각종 시험성적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등 여성 개인이 얼마나 능력

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알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지만 여성이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여성이 투표권을 웃으며 얻지 않았듯 이 과정(여성리더의 수를 늘리는 과정-필자 첨가) 역시 자율과 선의에만 기댈 수 없다. 기업 내 여성 임원 할당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김진아, 2019: 100).

김진아는 한 발 더 나아가 자기 자신 역시 구조적으로 다른 여성을 착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고위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에 전념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도 여느 남성생계부양자처럼 다른 여성의 돌봄 노동을 착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전 같으면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했겠지만 아내라는 이름으로 다른 여성을 착취하는 일임을 이제는 안다. 한 여성-엄마의 노동을 이만큼 무급 착취했으면 충분하다(김진아, 2019: 54~55).

그러나 아쉽게도 자기 돌봄은 변혁적 복지모델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개인이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처리된다. 가령 김진아는 다른 사람의 돌봄에 기대기보다 온라인 쇼핑 등 가사노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여기서 돌봄과 관계를 생각하던 페미니스트는 다시 소비 자본주의의 주체로 돌아온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여성 야망 담론이 개인의 '웰빙', '개인의 행복'을 궁극의 목적으로 지향하는지를 살펴보자. 후기자본주의 시대에 교육받은 중간계급 여성들은 자신의 웰빙을 지향한다. 그리고 웰빙은 무엇보다 소비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 맛 집을 찾다니고 해외직구로 브랜드를 구입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나 카피라이터인 김진아는 기업이 여성들을 어떻

게 파워 소비자로 만들어내는지를 간과한다. 야근에 지친 자기 몸에 좋은 음식으로 보상하고 매력자본을 최대화하기 위해 소비하는 일은 여성의 주체성이 아니라 “기업과 시장이 장려한 소비자 주체성”(79)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이다. 김진아에 따르면 나를 주체적으로 꾸미는 소비는 알고 보면 나의 웰빙이 아니라 어떤 남자의 웰빙이다. 그러면서 꾸미기 위한 소비를 반성한다.

내 기분 좋자고, 힐링하려고, 더 멋진 나로 꾸미려고, 더 나은 남자를 찾으려고 하는 게 페미니즘이 아니라는 사실. 자기계발이 아닌 정치의 영역이라는 사실. 페미니즘이 남성 중심 사회와 가부장제를 향한 생존 투쟁이자 해방운동이라는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여자들은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김진아, 2019: 34).

탈코르셋 운동과 함께 이제 페미니스트에게 소비는 정치적 문제가 된다. 소비는 개인적이고 수동적 행위에서 집단적이고 적극적 행위자성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가령 페미니스트들은 여성혐오적인 기업에 대해 소비 총과업을 벌이거나 여성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여성을 독려하는 정치적 활동을 한다. 소비행위는 개인적이지만 소비의 목적은 개인적이지만 양게 되었다. 이것은 단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혁명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신자유주의의 그물 속에서 신자유주의의 구멍을 만들어내고 그 얽힘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틀을 교란하는 행위자성을 갖는다.

결국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김진아의 ‘성공’은 신자유주의의 틀거리를 벗어난다. 리더가 된다는 것, 고위직이 된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을 넘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다.

페미니즘을 광고로, 매스미디어로 연결시키기 위해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 계속할 것이다. 그게 내가 이룰 수 있는 성공이리라(김진아, 2019: 132).

이들은 사회조직도 변화시킨다. 여성게이머들은 여성혐오적인 회사를 나와 여성들을 위한 기업을 창업하고 여성과학자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대안 경제 기업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WISET 블로그, 2018).⁹⁾ 김진아 역시 여성들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우먼소셜클럽'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페미니스트 여성의 '성공', 유리천장 깨뜨리기의 결과인 것이다.

물론 김진아는 여기서 프레이저가 말했던 보편적 돌봄 노동자 모델과 같은 변혁적 개선책을 분명하게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한국식 야망 담론은 미국의 여성리더 담론과 달리 젠더에 따른 노동 분화와 여성 내의 계급 분화가 구조적이라는 인식에 도달한다.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을 충실하게 밀고 나가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의 토대가 되는 기술 자본 기반적 재생산을 거부한다. 중간계급의 이익을 충실하게 따르는 과정에서 소수자에 대한 도덕을 거부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연대와 배려의 도덕은 실천한다. 여기서 여성들의 실천은 일관적이지 않다. 그들의 행위자성은 처음부터 신자유주의를 변혁하기 위해 저항하는 행위자성은 아니지만 신자유주의의 문법을 반복적으로 혹은 과잉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이탈하기도 하는 행위자성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한국형 야망 담론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페미니스트 주체의 행위자성을 과잉과 모순의 행위자성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야망 담론은 신자유주의 페미니즘이지만 신자유주의 페미니즘을 넘어선다. 가령 페미니스트들은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을 과잉으로 최

9) 『WISET』은 경력단절 과학전공자 여성들이 만든 온과학교육문화협동조합, 짧은 근속과 재취업이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자 여성 IT전문가들이 만든 굿잡마마협동조합, 과학기술과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든 한국창의여성연구협동조합 등을 소개하고 있다.

대화하는 가운데 비연애와 비혼을 선택하고 이로써 자본기술을 토대로 하는 생산과 재생산의 신자유주의 세트를 넘어선다. 야망담론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소수자에 대한 도덕은 버리지만 철저히 생존의 문제에 천착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한해서만은 연대하고 배려한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자신의 실패는 구조의 결과임을 인식한다. 이로써 '성공'과 '행복'은 신자유주의적 의미를 이탈한다. 성공은 경쟁을 통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며, 행복은 기업과 시장이 장려한 소비가 아니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정치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된다. 생존을 모색하는 가운데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비자본주의적 기업을 만들기도 한다. 이로써 야망보지 프로젝트는 아직은 미약하지만 새로운 커뮤니티나 대안 경제를 만들어 내는 변혁적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6. 변혁적 관점과 협상하는 페미니즘

앞서 필자는 로텐버그와 함께 미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성리더 성공 담론이 “일-가정 균형”과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페미니즘이며 신자유주의 페미니즘의 특징은 또 다시 신자유주의적 합리성, 새로운 여성 중간계급의 등장, 자기-책임론, 개인의 정서적 웰빙과 같은 키워드를 통해 해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로텐버그는 샌드버그 식의 여성리더 담론을 신자유주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는 포스트페미니즘으로 규정한다. 프레이저의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신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젠더 이분법과 계급적 착취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변혁적 개선책을 제시할 수 없다. 그것은 보편적 돌봄 노동자 모델과 같이 계급적 차별 없이 성별 분업을 없앨 수 있는 변혁적 방법을 고안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와 달리 필자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등장하고 있는 야망 담론과 유리천장 깨뜨리기 담론은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나마 과잉과 모순의 변혁적 행위자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령 김진아의 저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야망 담론은 신자유주의적인 합리성을 과잉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가운데 연애와 결혼을 거부하는 등 가부장적 기반을 뒤흔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소수자를 고려하지 않고 철저히 자신의 생존에 관심을 두는 야망 담론은 모순적이지만 여성에 한해서만은 도덕적 태도를 견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잉과 모순의 행위자성을 갖고 있기에 야망 담론은 성공과 행복의 의미를 해체적으로 재구성한다. 여기서 성공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며 행복은 여성들이 연대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가장 신자유주의적이면서 동시에 신자유주의적이지 않은 행위자성을 보여주는 한국사회의 유리천장 깨뜨리기 담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대대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변혁적인, 보수적이지만 때로는 매우 급진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이 프로젝트가 젠더 정의를 앞당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로텐버그는 미국의 여성리더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체제와 비판 페미니즘이 함께 갈 수 없다고 보았다. 프레이저 역시 젠더에 따른 노동 분업과 계급 격차를 해체할 때 비로소 젠더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보편적 돌봄 노동자 모델과 같은 변혁적 관점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성별뿐 아니라 여성 내부의 계급적 차이까지도 고려하는 페미니스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형 야망담론은 철저히 변혁적이지 않다. 그것은 모순적이다. 그러나 프레이저 스스로도 고백하듯 경제적 사회주의와 문화적 해체주의를 조합하는 변혁적 개선책을 현실에서 대대적으로, 한 번에 실현하는 일은 쉽지 않다. 변혁적 개선책은 “모든 사람이 현재의 문화적 구성과 결부된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체성에 대한 애착에서 벗

어날”(프레이저, 2016: 65)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한데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판이론으로서의 페미니즘은 현재의 유리천장 깨뜨리기 담론을 신자유주의에서 전적으로 벗어나지 못한 포스트페미니즘이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체성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페미니스트들이 과잉과 모순을 통해 자신의 행위자성을 넓혀가고 있는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페미니스트들이 어떻게 변태하고 있는지, 어떻게 신자유주의 구조를 이탈하고 협상하는지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비판이론으로서의 페미니즘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참고문헌

- 김진아(2019), 『나는 내 파이를 구할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 서울: 바다출판사.
- 신경아(2013), “여성노동자의 생애이야기에 나타난 ‘개인’의 인식”, 『젠더와 문화』, 제6권 2호, 215-252쪽.
- 엄혜진(2014),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자기계발 담론에 나타난 여성 주체성과 젠더관계: 1990년대 이후 베스트셀러 여성 자기계발서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학위 논문.
- 임옥희(2010), “신자유주의시대 모성의 정치경제학”, 『여/성이론』, 제22호, 10-32쪽.
- 프레이저, 낸시(2016), “재분배에서 인정으로? -‘포스트사회주의’ 시대 정의의 딜레마”, 낸시 프레이저 외(2016),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낸시 프레이저의 비판적 정의론과 논쟁들』, 케빈 올슨 엮음, 이현재·문현아·박건욱 옮김, 서울: 그린비, 24~68쪽, Fraser, N.(2008), “From Redistribution

to Recognition?”, in *Adding Insult to Injury*, ed. K. Olson, London: Verso, pp. 11~41.

_____ (2016a), “인정을 다시 생각하기 - 문화 정치에서의 대체와 물화의 극복을 위하여”, 낸시 프레이저 외(2016),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낸시 프레이저의 비판적 정의론과 논쟁들』, 케빈 올슨 엮음, 이현재·문현아·박건 옮김, 서울: 그린비, 202~220쪽, Fraser, N.(2008), “Rethinking the Recognition”, in *Adding Insult to Injury*, ed. K. Olson, London: Verso, pp. 129~141.

_____ (2017), 『전진하는 페미니즘』, 임옥희 옮김, 파주: 들베개, Fraser, N.(2013), *Fortunes of Feminism*, London: Verso.

모건, 맥 마이어스(2019), 『여자에게는 야망이 필요하다』, 김나연 옮김, 서울:

토네이도, Morgan, M.(2018), *Everything is Negotiable: The 5 Tactics to Get What You Want in Life, Love, and Work*, NY: Seal Press.

샌드버그, 세릴(2013), 『린 인』, 안기순 옮김, 서울: 와이즈베리, Sandberg, S.(2013), *Lean In*, NY: Knopf.

통계청·여성가족부(2018),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Fraser, N.(1987), “What’s Critical about Critical Theory?”, in *Feminism as Critique: Essays on the Politics of Gender in Late-Capitalist Societies*, ed. D. Cornell and S. Benhabib,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Rottenberg, C.(2018), *The Rise of Neoliberal Femin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illiams, J.(2019), “Women and Work in Korea: Lessons from Other Lands”, 한국여성학회 주최 Joan C. Williams 교수 초청특강 「성평등 노동시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제안」 자료집 발표문(2019.7.1).

〈언론기사〉

『여성신문』, 2019.10.17, “배울 여성 롤모델 ‘없다’”.

『오마이뉴스』, 2019.10.17, “‘성별 임금 격차’ 부정하는 유튜브 방송... 성차별은 어떻게 정당화되나”.

『중앙일보』, 2019.3.7,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 17.1%...세계평균 크게 밑돌아”.

『한국일보』, 2019.9.26, “결혼한 남녀 임금 격차, 싱글 남녀 격차의 배”.

〈인터넷자료〉

블로그 연희관 015B(2019), “[신자유주의의 환상] 페미니스트에게 다른 야망”, <https://yeonhee015b.tistory.com/121> (검색일: 2019.1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2018), “성별 국가고시 합격자 수 및 여성 비율”, https://gsis.kwdi.re.kr/gsis/kr/board/BoardDetail.html?board_class=BOARD20&board_seq=9209&menuId=2003103&rootId=2003000 (검색일: 2019.10.16).

Williams, J., August 22, 2012, “Slaughter vs. Sandberg: Both Right” in Huffington Post, https://www.huffpost.com/entry/ann-marie-slaughter_b__1619324 (검색일: 2019.10.10).

WISET 블로그(2018), “함께 만드는 시너지 ② ‘여성과학기술인협동조합’이 궁금해?”,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isetter&logNo=221313823683> (검색일: 2019.10.13).

(논문 투고일: 2019.10.31, 심사 확정일: 2019.12.01, 게재 확정일: 2019.12.16)

〈Abstract〉

Gender Justice and 'Breaking the Glass Ceiling' in the Neoliberal Era:

A Proposal of Critical Feminism as a Transformative Remedy

Lee, Hyun-Jae*

This paper seeks to explore the direction that gender justice should pursue while critically analyzing the 'glass ceiling breaking' discourse. According to Katherine Rottenberg, the discourse of women leaders in the US, centered around work-family balance and happiness,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the neoliberal system rather than guaranteeing gender justice. To Apply Nancy Fraser's theory of Justice, this 'neoliberal feminism' fails to present transformative remedies for gender inequality and class exploitation of women. When we consider how the 'breaking the glass ceiling' discourse is playing out in Korean society, in the recent book of the feminist communications director Jin-Ah Kim, the neoliberal subject reinforces neoliberalism in the process of excessively following the neoliberal principle, but goes beyond this or changes the existing framework by bringing contradictory results.

Key words: neoliberalism, gender justice, glass ceiling, feminism as critique, transformative remedy

* Professor, Urban Humanities, University of Seoul